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7호 - 주체91(2002)년 4월 21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께서 발굴정리된 송암동굴을 돌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일 새로 발굴정리된 송암동굴을 돌아 보시였다.

오래전부터 용해, 용식작용을 받아 석회암의 석수가 천태만상의 조화를 이루어 놓은 천연동굴인 송암동굴에는 수천m의 원굴과 수십개의 가지굴이 있으며 여기에는 석순과 석화로 형성된 꽃문동, 폭포동, 기암동, 설경동, 백화동을 비롯하여 황홀하고 신비로운 명소들이 무려 70여개소에 펼쳐 져 있어 마치 지하궁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동굴을 돌아 보시면서 발굴정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인건설자들이 어렵고 방대한 동굴발굴사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고 인민의 참관지로 훌륭히 꾸려 놓은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또하나의 문화적재부를 마련하여 인민들에게 안겨 주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굴을 보여 주어 우리 인민들이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을 가진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발굴된 송암동굴은 후대들에게 물려 줄 만년대계의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므로 원상대로 보존관리하며 참관자들에게 아름답고 현란한 천하절경을 그대로 실감 있게 보여 주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등이 동행하였다.

한편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6일 태양절에 즈음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당과 국가간부들과 로씨야련방 싼크뜨-뻬쩨르브르그시장일행,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과 함께 관람하시였다.

조선신보 주체91, 4월 20일

주석님 탄생 90돐을 기념하여≪아리랑≫상연

펼쳐 지는 황홀경, 경탄, 감탄 련속

14일 밤,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10만명출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90돐을 기념하여 5월1일경기장에서 력사적인 첫막을 올렸다.

조국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비전향장기수, 평양시내 근로자들 그리고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서장

밤 9시 30분, 5월1일경기장 상공에 축포가 올랐다. 배경대에는 **김일성**화와 ≪영생≫, **김정일**화와 ≪영광≫, ≪축하≫라는 글발이 새겨 지고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춤바다가 펼쳐 졌다.

4개의 장에 11개 경, 서장과 종장으로 이루어 진 공연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상연되였다.

공연은 만수대예술단 석련희배우의 민요 ≪아리랑≫의 독창으로 시작되고 민족수난의 시기로부터 륭성번영하는 오늘의 조선이 건설된 과정을 민족적색채를 짙게 띠면서 대예술적화폭으로 펼쳐 보였다. 또한 온 겨레의 조국통일념원과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의 지향을 형상하고 이를 관람자들에게 힘 있게 호소하였으며 강성부흥할 내 나라, 내 조국을 일떠세울 조선인민의 굳건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상공에 또다시 축포가 올랐다.

관람자들은 훌륭한 공연에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였다.

1만 8천여명이 출연한 거대한 배경대와 장면마다 약 1,500명이 하나와 같이 움직여 힘찬 체조와 우아한 춤이 피로되는 무대 그리고 조명, 음악, 여러 장치들이 조화를 이루어 5월1일경기장에는 황홀경이 펼쳐 졌다.

3장 1경 이선남폭포

이에 관람자들은 한결같이 경탄을 금치 못해 하며 공연을 본 감상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좋을지 모른다고 말하였다. 또한 경기장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체조와 무용, 변화무쌍하는 배경대, 여러 장치와 구조물이 형상하는것을 다 보고 싶은데 어느 한 부분에 정신이 팔리면 다른것을 놓친다고 감격속에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조청 히로시마현본부 리영수위원장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확실히 달랐다. 형상수준이 또다시 높은 경지에 올랐다.≫라고 자기 나름의 분석을 하면서 ≪아리랑을 주제로 한 공연은 민족적인 색채가 잘 나타나고 아리랑민족으로서의 긍지가 한껏 안겨 오는 공연이였다. 일본이란 환경속에서 사라질번 하는 조선민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난 느낌이였다.≫라고 말하였다.

73년만에 조국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조선의 집단체조를 본 총련 東京도 板橋지부 김일영동포(80살)는 ≪젊었을 때 유럽나라의 마스겜을 몇번 본적이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이다.≫고 감탄을 표시하면서 ≪청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 우리 나라는 정말 위대하다. 이런 큰 힘이 있다는것을 절감했으며 신심이 났다.≫라고 말하였다.

조선신보 주체91, 4월 20일

현 시대와 민족미술발전에 관한 미학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평양미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현 시대와 민족미술발전에 관한 미학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평양미술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강능수문화상의 보고가 있었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미술발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밝혀 주심으로써 우리의 미술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미술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진실하게 그려 내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예술로 날로 개화발전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이어 ≪주체의 미학관은 자주시대 민족미술의 개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옳바른 미학사상≫, ≪오랜 전통을 가진 조선화는 우리 나라 민족미술의 기본≫, ≪모든 미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키는것은 주체미술건설의 근본요구≫ 등의 제목으로 미술창작가들, 미술부문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민족미술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과업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해설론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19일

2 종합
- 강반석녀사의 탄생 110돐
-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 련일 성황
-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단독공연
- 주미대사관 반미집회 참가자들 연행
- 일본의 속심을 대변한 오자와 이찌로의 ≪핵보유≫발언

4 칭송
- 우리 아버지(1)
- **김일성**동지를 노래합니다

5 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2)

7 세기와 더불어
- 6장 7절 소사하의 가을(2)

9 노동신문 정론
- 90돐을 성대히 기념한 긍지 안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혁명의 성산, 백두산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4.19 그날의 염원 기어이 실현하자
- 4.19의 의미 오늘에 되새겨본다

13 투쟁보도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너무 많다
- 국방부는 F-15K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 임동원 ≪10년후 사실상 통일상황 가능≫
- 노동조건 후퇴없는 5일 근무제 도입하라
- 울산공무원 노조 전격출범
- 4.19와 박정희기념관은 공존할 수 있나

15 운동강좌
-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1)

강반석녀사 탄생 110돐

강반석여사

4월 21일은 강반석녀사의 탄생 110돐이 되는 날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께서는 1892년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조선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과 가정을 이루신 후 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시면서부터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을 찾아 국내외 각지에서 찾아 오는 수많은 혁명가들의 숙식보장과 비밀련락, 무기운반 등 어려운 사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또한 아버님의 뜻을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사업을 적극 받들어 주시였다.

녀사께서는 주석의 지도밑에 주체15(1926)년 12월 26일 조선에서 첫 혁명적 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결성하시고 그 회장으로 사업하시였다.

그리고 주석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을 때에는 유격대를 원호하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시였다.

진정 녀사께서는 자신과 가정의 모든것을 조국과 혁명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시였다.

녀사께서는 림종을 앞두고 나라가 광복되기 전에는 자신의 묘를 조국땅에 옮기지 말게 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신 다음 1932년 7월 31일 4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였다.

조선인민은 녀사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가와 묘소에 그이의 동상과 반신상을 모시였다.

또한 녀사의 명함을 모신 혁명학원과 고등중학교도 세웠다.

녀사의 혁명활동을 보여 주는 문학예술작품들과 도서들도 많이 창작, 출판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9일

여성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시는 조선공산주의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여사

반일인민유격대대오를돌아보시는강반석여사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 련일성황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새로 개관된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 있는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장으로 련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항일혁명투사들, 비전향장기수들,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전시회장을 찾은 참관자수는 지난 14일에 개막된 후 지금까지 근 30만명에 달한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과 조선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전시회장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대원수복을 입으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신 주석의 영상을 콤퓨터형광사진으로 모시고 415상의 **김일성**화와 90상의 **김정일**화를 전시한 인민무력부전시대가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장에는 조선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에서 성의껏 준비하여 내놓은 **김일성**화와 희귀한 꽃과 열매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을 드리운 여러 나라 벗들이 정성껏 마련하여 내놓은 **김일성**화꽃바구니, 중국단동동원무역상사에서 전시한 **김일성**화들도 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9일

여러 나라 예술단들의 단독공연

18일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여러 나라 예술단들의 단독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봉화예술극장에서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공연의 막을 올린 중국인민해방군총정치부가무단은 군무 ≪협산준령을 넘어≫, 중국노래 ≪장강의 노래≫, 조선노래 ≪내 나라≫ 등 훌륭한 작품들을 무대에 펼쳐 보이였다.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공연한 로씨야모이쎄예브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은 ≪군함에서의 하루≫, ≪여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무용들과 로씨야인민의 전통적인 생활풍습, 민족적정서를 반영한 많은 무용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평양대극장에서 서장 ≪태양절에 드리는 노래≫로 공연의 막을 올린 재일조선인예술단은 ≪꿈결에도 그리운 수령님의 품≫, ≪내 마음 철새가 되지 않으리≫ 등의 노래와 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따라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총련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갈 불 같은 결의를 뜨겁게 보여 주었다.

한편 몽골예술단은 동평양대극장에서, 젊은 도이췰란드교향악단은 모란봉극장에서, 재중조선인예술단은 청년중앙회관에서, 재미조선인예술단은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단독공연을 진행하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장철 위원장, 강능수문화상, 변영립교육상 등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9일

주미대사관 반미집회 참가자들 연행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경찰은 지난 16일 주한미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김모씨 등 15명을 연행했습니다.

경찰당국은 김모씨 등이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사회단체회원과 대학생들과 함께 ≪F-15≫기 도입과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건립반대 월례집회를 진행했다 해서 연행해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중 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반전의 목소리를 잠재워보려는 용납못할 폭거라 하겠습니다.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는 인간에게 부여된 초보적인 권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이 주한미대사관주변에서 월례집회를 갖고 ≪F-15≫기 도입과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건립을 강력히 반대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탄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이 반미집회를 강행케 만든 장본인이 다름아닌 관계당국과 미국이기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관계당국은 각계 민중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F-15≫기를 도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경제가 파국상태에 처하고 민생에 도탄에 빠진 오늘의 현실에서 당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F-15≫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근로민중의 생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민중이 이를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건립문제도 그렇습니다.

사회각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서울 용산기지를 즉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간에 서명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 용산기지이전에 관해 별도 협의한다는 원칙만 정해놨을 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군당국이 어떻게 해서라도 용산기지를 내놓지 않으려는데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미군당국은 서울 용산기지를 이전도 하지 않고 기지내에 아파트까지 건립하려고 책동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 민중이 분격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등이 ≪F-15≫기 도입과 용산기지내 아파트건립반대집회를 가진 것은 미군기지를 즉시 폐쇄하라는 각계 민중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서 찬양을 받을지언정 절대로 탄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당국이 탄압의 방법으로 최근들어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투쟁을 잠재워보려 한다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폭압이 결코 만능이 아니고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당국은 각계 민중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기 전에 부당하게 연행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해야 하며 정당한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군기지이전과 ≪F-15≫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각계 민중은 경찰당국의 그 어떤 탄압에도 주춤하지 말고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반미투쟁의 파고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각계 민중 힘을 합쳐 중단없는 반미투쟁을 벌여나간다면 어떤 요구도 능히 관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9일

일본의 속심을 대변한 오자와 이찌로의 ≪핵보유≫발언

≪로동신문≫ 19일부는 ≪일본은 위험한 핵전쟁세력≫이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론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눈만 뜨면 사람들의 귀가 메일 정도로 ≪반핵정책≫에 대하여 떠들어 대던 일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일본 자유당 지도자 오자와 이찌로는 한 강연에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천개의 핵탄두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줴쳤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에서 3,000~4,0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니움을 추출할수 있다≫고 기세를 올렸다. 그는 주변나라들의 ≪군사력증강≫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고 떠들어 댔다.

얼마나 핵대국화야망에 들떴으면 이따위 소리를 거리낌없이 늘어 놓겠는가.

지금껏 일본은 ≪비핵정책≫, ≪반핵평화≫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들어 왔다. 일본은 ≪비핵3원칙≫이 일본의 ≪반핵정책≫을 보여 주는 ≪상징≫으로 된다고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도 고려함이 없이 공공연히 핵무장화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이로써 핵대국화를 꿈 꾸는 일본의 정체는 더는 숨길수 없게 되였다.

오자와의 호전적언행은 21세기 세계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고 위협이다. 그것은 일본반동계층들의 진짜속심을 그대로 로출시킨것으로서 절대로 묵과될수 없다.

그들의 속심은 군사대국화를 다그치자는 것이며 그 첫째 목표는 핵무장화이다. 핵무장화는 일본반동들이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야망이다. 일본의 력대 집권자들이 핵무기보유에 대하여 떠들어 온 사실들은 잘 알려 져 있다. 핵무장화를 정책화한 일본은 핵관련기술과 시설들을 연구개발하고 체계적으로 플루토니움을 저축해 왔다. 일본은 현재 4,000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외국의 한 출판물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에 추출할수 있는 플루토니움이 약 3만톤이나 있다고 폭로하였다. 400톤의 플루토니움으로 6만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다는 자료와 비교해 볼 때 3만톤의 플루토니움으로 얼마만한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가 하는것은 쉽게 알수 있다.

계산상 그 수자는 지금 미국 등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합친것보다도 훨씬 많은 세계최대의것으로 된다.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은 도수를 넘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핵무기제조기술과 운반수단개발기술에서 세계1류급수준에 올라 섰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대국으로 될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한것이 힘이 약하고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탓이라고 하면서 기어코 막대한 량의 핵무기를 가지려는것이 일본의 속심이다. 오자와는 이번에 일본의 이러한 속심을 대변한것이다.

오늘의 일본은 비핵국가가 아니며 매우 위험한 핵전쟁세력이다. 일본반동들이 주변나라들의 ≪군사력증강≫을 걸고 드는 것은 다름 아닌 저들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패에 불과한것이다.

일본의 핵위협은 현실성을 띠고 있으며 일본은 온 지구우에 핵재난을 들씌울 위험한 핵전쟁온상으로 되고 있다.

일본은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가지고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핵무장과 해외군사작전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법적장치들을 거의 모두 제거하고 침략전쟁체제를 갖추어 놓은 조건에서 일본의 핵무장화위험성은 대단히 크다.

일본의 핵공격의 첫 대상은 우리 공화국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우리의 ≪핵위협≫에 대하여 계속 떠들며 불집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수수방관할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을 위협하며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다. 일본이 우리를 반대하는 핵공격작전을 벌린다면 우리는 일본침략자들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릴것이다.

일본의 핵무장화는 자멸의 길이다.

일본은 핵무장화야망실현이 어떤 후과를 초래할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할것이다. 세계는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일본을 핵피고석에 끌어 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9일

시

우리 아버지 (1)

재 러시아동포 정일심의 마음을 담아

꿈결에도 그리운 그 미소에
꽃들이 피었습니까
두고 가신 그 사랑이
이 봄날 안고 왔습니까
산에도 들에도
백화만발한 4월
90돌 탄생절 싣고 온
4월의 봄날

저 멀리
시비리를 지나
우랄산맥을 넘어
내 사는 이역땅엔
아직도 찬바람 불건만

주석님 그리워
장군님 뵙고싶어
백발의 몸 일궈 찾아온 평양은
어쩌면 이리도 따스합니까
이리도 꽃들은 붉고 붉습니까

계절의 꽃이야
한철 피고 지지만
내 마음 속에 붉게 핀 꽃은
주석님 사랑 못잊는
그리움의 송이송이
영생축원의 떨기떨기

봄이 왔다면
태양이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태양절의 이 봄날엔
어디선가 문득
뵈올 것만 같은 주석님
묘향산의 그 가을날처럼
이 딸을 한품에 안아주실 것만 같은
우리 아버지!

세월이 간들 잊으오리까
찾고찾던 사람들이 왔다고
외국손님은 후에 만나겠으니
안동수가족부터 데려오라고
친딸, 친손자들인양
문밖까지 나오시어
한품에 안아주시던 그 모습

꿈엔들 잊으오리까
50년대부터 찾기 시작한 안동수가족이
80년대가 다 저무는 오늘에야 찾아오다니
어데 있다 이제야 왔느냐
격하게 터치시던 그 음성

원동에서 타슈켄트로
타슈켄트에서 모스크바로
여기저기
떠돌이인생이었던 우리 가족

몰랐습니다
김일성주석님
사막에 슴새버린 물방울 찾듯
밀림에 떨어진 바늘을 찾듯
넓으나 넓은 소련땅에
우리를 찾아 숱한 사람 보내신 줄

외국방문길에 오르실 때마다
기창밑에서 흘러가는
넓은 시비리땅을 굽어보시며
여기 어딘가
안동수가족이 살고 있을거라고
내내 생각했다 하신 그 말씀에
참고참던 눈물 쏟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도 애만 태우고
너무도 뒤늦게야 찾아온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
늦게나마
만수무강의 축배잔 올리려는데
잔 하나 더 가져오라고 하신 주석님

청하신 그 누군가가 또 있는 듯
그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듯
조용히 창가에 다가가시어
가을비 내리는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안동수생각이 더 자주 났다고
나와 동무들이 오늘
한가족처럼 마주 앉았으니
아마도 오늘 내리는 이 비는
그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거라고

주석님의 음성은 갈리셨는데
아, 또 이어지는 말씀
  너희들의 아버지에게도
한잔 부어라
저의 자식들이 술을 붓는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눈굽을 적시는 주석님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못잊으셨으면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에서도
저희들이 올리는 축배잔에서도
떠나간 전사를 그려보셨겠습니까
아, 고금동서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주석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여!

흠모

김일성동지를 노래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작가 알렉싼드르 브레쥬네브가 시 ≪**김일성**동지를 노래합니다≫를 창작발표하였다.

그는 시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솟아 오르신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금강석처럼 빛을 뿌리고 승리의 열병식처럼 위훈으로 빛나고 있다고 썼다.

주석의 한생은 세기를 넘어 펼쳐지는 희망찬 생활을 안아 왔다고 하면서 그이의 품에서 자라나 그이의 넋으로 사는 조선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로 매진하고 있다고 시는 지적하였다.

조선의 행운을 안아오신 그이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고 꺼질줄 모르는 조선의 힘이며 이 행성의 영광이라고 시는 지적하였다.

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는 언제나 인민을 위한 길에 주석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그이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사회주의운명의 수호자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삼가 드리는 ≪영원한 태양절≫이라는 제목의 시를 로씨야의 전쟁로병이며 시인인 깐따 미로브 레오니드 빠블로위치가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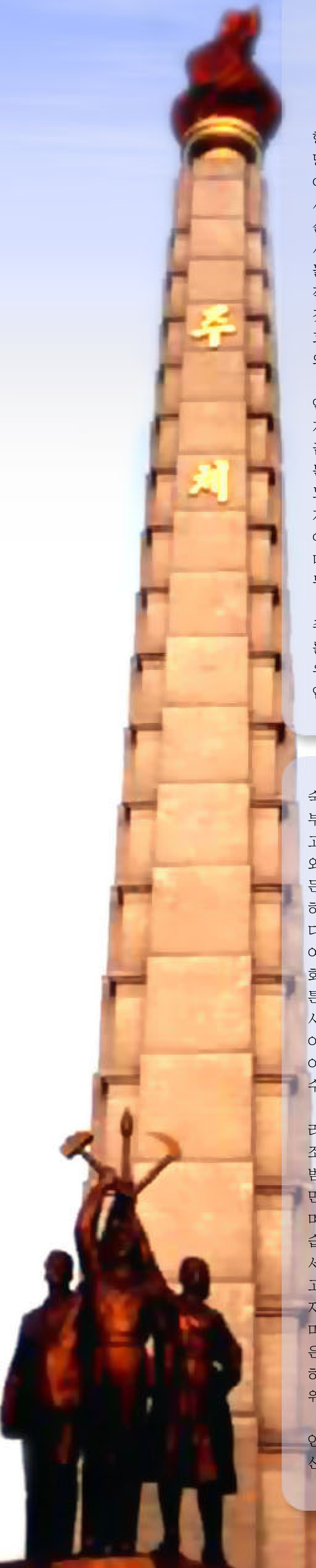
시는 해마다 만민이 경사로 맞는 4월 1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그리며 영광의 꽃다발 삼가 드리고 경모의 노래 삼가 드리는 영원한 태양의 명절이라고 썼다.

빛나는 이날이 있어 식민지멍에에 짓눌렸던 인민들이 새 삶의 참된 주인이 되여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시는 썼다.

시인은 이 땅에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세계는 영원한 인류의 명절인 4월의 태양절을 맞이하고 또 맞이하리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2)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 - 주체75(1986)년



2. 조선노동당은 주체의 혁명적 당

조선노동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주체형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입니다. 조선노동당을 한마디로 특징지으며 주체의 혁명적 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이며 주체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당이란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 조직체입이다. 당은 일정한 사회적 집단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를 대변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당의 성격과 사명은 그 사회계급적 기초와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조선노동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당입니다. 우리 당은 노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노동계급과 함께 농민과 근로인텔리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자기대오에 널리 망라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노동계급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모든 활동을 진행합니다. 우리 당의 마크는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 성격을 뚜렷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검증되었으며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건설과 모든 당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사람을 기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로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이방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전당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함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합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데서 우리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됩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노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의 창조력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들고 전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창건되고 강화, 발전되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영도하여 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의 기본사명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주체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위업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우리는 당의 창건을 선포할 때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고 우리 나라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당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항일혁명투쟁 시기부터 목표로 내세웠던 투쟁강령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우리 당의 첫 강령이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아직도 전국적 범위에서는 이 강령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 앞에 나선 당면한 혁명임무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을 당의 당면임무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공산주의건설위업을 완수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대한 혁명과업입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여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작용이 없어지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질 때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될 때 공산주의건설위업을 실현하는데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다그치며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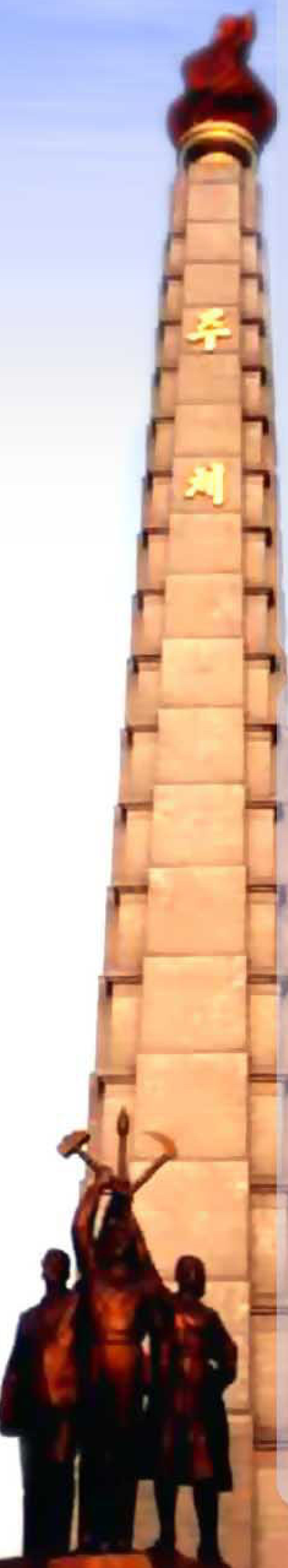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투쟁과업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행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의 최종적인 혁명임무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는 낡은 사회유물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인류의 이상사회입니다.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고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을 잘하는 것과 함께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세계혁명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실현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세계혁명은 모든 공산당, 노동당들과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의 국제적 위업이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매개나라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국제적 의무입니다. 세계혁명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전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주화된 세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입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이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놓게 됩니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세계 공산주의운동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고 인류해방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공산주의가 전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여야 자주성을 위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 나라 노동계급과 인민들이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밑에 형제적 공산당, 노동당들을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 정당들과 굳게 단결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온갖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는 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끝까지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그 성격과 사명으로 보나, 활동방식과 사회역사적 지위로 보나 다른 정당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본성과 특성에 맞는 고유한 원리와 원칙에 기초하여 건설되어

→



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당이 자기의 영도적 기능과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리입니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당활동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로부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놓아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노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방식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며 그 근본요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에 맞게 사람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교양자이며 조직자입니다. 당사업의 대상은 사람이며 당의 임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내용으로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며 당사업과 당활동은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은 사회의 영도적 정치조직입니다. 당의 영도 밑에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이 진행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합니다. 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영도하는 여기에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당은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확고히 실현할 때에만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의 참다운 대표자로 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이끌어나가는 참다운 영도조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적 당건설의 원리를 구현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참답게 옹호할 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위력한 불패의 당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건설에서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당건설에서 견지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첫째로 당 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이며, 둘째로 당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세째로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당 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당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전당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지도되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하나의 중심에 의하여 통일, 단결되어야 하며 유일적인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 안에 유일사상의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당 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만 당이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대오의 조직사상적 단결을 이룩할 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 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어야 하며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되어야 합니다. 사상의 유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할 수 없으며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상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지 못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대열의 통일과 단결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할 때에만 가장 공고하고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위력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당의 사상의지적, 혁명적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전당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합니다. 당은 사상의 일색화에 기초하여서만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할 수 있으며 영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어야 영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당의 지도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여 모든 당원들이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한 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내포하고 있는 당건설 원칙이며 그것은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당원들의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한 당의 조직적 의사입니다. 당 안에서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하여야 당노선과 정책에 대중의 의사가 옳게 반영될 수 있으며 그것을 대중자신의 것으로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원은 당조직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전당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중앙집권적 규율을 확립하여야 전당의 유일적인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이 같이 숨쉬고 움직이며 운명을 같이 하는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노동계급의 당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 속에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질 수 있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룸으로써만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켜 인민대중을 역사의 위대한 창조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는 여기에 당의 위력이 있으며 또한 인민대중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역사의 주체이며 혁명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에 의해서만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의 힘있는 동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어 대중을 혁명적으로 이끌어줌으로써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합니다.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당을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당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당건설의 전 행정에서 당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들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당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공산주의운동과 당건설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당건설위업도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데서 기본은 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당건설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계승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바뀔 때 당의 혁명적 성격과 투쟁업적을 고수할 수 없고 자기의 혁명적 역할을 보장할 수 없으며 결국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수 없게됩니다. 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은 당과 사회가 발전하여 나가는 전 과정에 변함없이 계승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데서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전통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한 귀중한 혁명적 재보이며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명맥입니다. 혁명전통에는 당의 지도사상과 지도이론, 지도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혁명투쟁의 전 역사적 기간에 이룩되고 축적된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은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하지 못하면 당과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없으며 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 과정에 이룩되고 발전, 풍부화된 혁명전통의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적인 당건설 원리와 원칙들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으며 우리 당을 오늘과 같은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건설의 역사적 경험은 바로 주체의 당건설의 원리와 원칙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우리 당을 노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룩한 고귀한 경험입니다.

(내일 계속)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 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이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7. 소사하의 가을(2)

나는 전에 무송에서 살 때 내 나이 또래의 소년이 병든 어머니를 업고 남전자에서부터 소남문거리까지 땀을 철철 흘리며 걸어와 의원을 찾느라고 애쓰던 광경을 목격한 일이 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그 소년을 보면서 효자라고 하였다. 김씨녀인의 말을 듣고나서 어쩐지 땀을 철철 흘리던 그 소년이 모습이 불쑥 떠올랐다.

그 아이에 비하면 나는 불효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도처에 스무살이 넘을 때까지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 어렸을적에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아랫목도 권하고 우물터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의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드리기도 하였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일손을 돕는다고 하면서 닭모이도 주고 초롱으로 물을 펴다 드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혁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별로 없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고 한 옛 사람들의 말은 바로 나를 념두에 두고 지어낸 명제인지도 모르겠다. 올리사랑이 없다고 한 말은 참으로 현명한 말이다. 섬기고 모신 자식들에게 바치는 부모들이 사랑을 릉가하는 그런 효성으로 부모들을 섬기고 모신 자식들이 있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철주야,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남긴 말씀은 없었니?≫

나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긴 유언중에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철주에게 또 물었다.

철주는 손등으로 눈두덩을 문지르고 목쉰 소리로 대답했다.

≪형을 잘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을 잘 도와드리구 형과 같은 혁명가가 되면 지하에 가서도 편히 잠들 수 있다구.≫

그러고보면 어머니의 모든 정신력은 마지막순간에도 오직 혁명 하나만을 위해 소모된 것이었다.

나는 동생들을 데리구 그달음으로 어머니의 묘소에 찾아갔다.

느릅나무고목이 외따로 서있는 언덕받이 한옆에 수박무늬 모양으로 떼장을 덮은 어머니의 묘가 있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쥐고 두 동생과 함께 그 묘앞에 절을 드리었다.

(어머니, 성주가 왔습니다. 불효막심한 이 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남만에 갔던 걸음이 늦어져서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내가 땅우에 주저앉아 이런 속대사를 하고 있을 때 철주가 느닷없이 묘우에 엎으려 손으로 떼장을 우벼내였다.

≪뭘 그러고 있느냐?≫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철주는 대답대신 눈물을 뚝뚝 떨구며 량강구에서 내가 가지고 온 첩약봉지들을 봉분밑에 무데기로 파묻는 것이었다.

동생의 그 말없는 행동이 그만 내 가슴에 연기처럼 서려있던 비애를 사정없이 건드려놓고야 말았다. 혁명가로부터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지상만물이 그 무덤 하나로 응결되고 세상만사가 어머니의 상실이라는 하나의 비극으로 압축된 것 같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머리우에서는 푸르디푸른 가을하늘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명랑하게 대지를 굽어보고 있었다. 어쩌면 저 하늘이 우리의 슬픔앞에서 저렇게도 태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것은 망국의 년륜이 스물두돌기나 감긴 1932년의 음산한 여름에 있었던 비극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좀 더 오래 이 세상에 살아있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병은 고생 끝에 생긴 것이었으며 그 고생은 망국의 시운이 빚어낸 것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로고는 참으로 헤아릴수 없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울인 효성이 열이라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부은 사랑은 천이나 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하활동을 하던 시기 4-5명의 공청원들과 함께 무송시가에서 적의 포위에 든적이 있었다. 포위를 헤치고 싸움을 하면서라도 현성밖으로 나가야겠는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리허에 있는 우리 동무들한테 가서 무기를 받아올 수 없겠는가고 부탁하였다.

어머니는 내 청을 쾌히 받아들이였다.

≪그까짓것 못하겠니. 내가 가서 가져오마.≫

말리허에 간 어머니는 우리 동무들한테서 권총 두자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말리허의 우리 동무들은 어머니의 요구대로 당기면 나갈수 있게 권총을 장탄까지 해주었다. 어머니는 그 싸창들을 소고기갈비속에 넣어 이고 성문을 대담하게 통과하였다. 성문앞에서 경찰들이 어머니의 그 소고기 함지를 가리키며 ≪그건 뭐야?≫하고 물었으나 어머니는 태연하게 ≪소고기웨다≫라고 대답하였다. 경찰들은 함지우에 씌워놓은 종이장만 들춰보고 어머니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나는 장탄을 하고 안전장치까지 풀어놓은 권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큰일날뻔했구만요. 이 총들에 총알을 왜 재웠습니까?≫

≪내가 너희 동무들을 보고 재워달라고 했다. 놈들이 이 함지를 수색하면 답새기자구 말이다. 기껏해야 두놈이나 세놈쯤 달려들겠지. 접어들면 한놈이라도 쏘고 나도 죽을 생각이었다≫

어머니의 그 말씀속에는 우리의 체험이나 천박한 사고방식으로써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고결한 넋이 깃들어있었다. 자식들이 하는 일에 리해와 열렬한 공감이 없이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용기였고 참사랑이었다.

우리가 구안도에서 마춘옥의 집 곁방살이를 하고 있을때였다. 하루는 우리 동무들이 권총을 손질하다가 오발해서 어머니의 다리를 다치었다. 치료를 잘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들릴수도 있는 위험한 총상이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였다. 누가 물으면 아침에 물을 던지러 나갔다가 락상하여 다리가 골절됐다고 하였다. 상처도 보이지 않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으면서 비밀리에 형권삼촌의 간호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원망하거나 오발을 한 사람에게 언짢은 기색을 지어보이지 안았다. 오발사고를 낸 동무는 너무나 미안하여 죽으려고까지 하였다.

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자 대노하여 ≪그러면 못쓴다.≫고 꾸짖었다.

≪너희들이 총이 서툴러서 그런것인데 그래도 다행이다. 사내라는 것들이 그만한일에 자살을 하다니. 그런 생각일랑 말구 비밀들이나 잘 지킬 궁리를 해라. 이 비밀이

→

새면 너희들도 큰일이 나고 이 집에도 큰일이 난다. 그리구 너희들은 성사를 못한다.≫

어머니는 다리의 총상보다도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경찰서에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셨다. 마춘옥이네도 이 오발사고에 대해서는 외부에 루설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의 품성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은 나의 동무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점이였다. 어머니는 나의 동무들을 나와 꼭같이 대해주었다. 우리 동무들이 집에 오면 사업비도 어머니가 대주었다. 그 사업비의 원천은 재봉일과 삯빨래질로 벌어들인 돈이였다. 목재소일군과 인삼을 캐러 다니는 계절로동자들이 광목을 끊어가지고 와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옷을 해달라고 자주 주문하였다. 어머니는 그들의 옷을 해주고 하루에 70-80전씩 벌었다. 일이 잘되는 날에는 1원도 벌었다.

비록 생활은 궁색하였지만 어머니는 돈을 쓰는 데서 린색하지 않았다. 그저 쌀을 사는데 필요한 돈과 타고장으로 갈 때 쓸 로자와 집세만 계산해 놓고는 번 돈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동무들이 오면 밀국수 몇근에 돼지고기 몇근을 사다놓고 교즈나 수제비국을 만들어 먹이거나 사업비로 쓰라고 하면서 저축했던 돈을 다 내놓군 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어머니, 성주네도 생활이 풍족치 못한데 밑천을 다 털어서 우리한테 주면 세간은 어떻게 해가시자구 그럽니까?≫하고 걱정하면 어머니는 ≪사람이

강반석여사가 돌아가신 소사하집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라고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나의 동무들이 몇 달씩 집에 와있어도 절대로 언짢아하지 않고 시종일관 친자식처럼 변함없이 대해주었다. 그러기에 만주에서 청년운동을 한 사람들가운데서 우리 집에 며칠씩 와있다가 간 동무들은 나의 어머니를 ≪성주 어머니≫라 하지않고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일평생 혁명가들의 밥을 해주다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도 애국자들의 시중으로 나들이조차 다니지 못하고 바쁘게 지내던 어머니였다. 림강에서 살 때에는 매일밤 밥을 하였다. 우리가 밤에 이불을 쓰고 잠을 청할 때면 아버지의 친구들이 어느때라고 편안히 잠을 자는가고 롱을 하며 집으로 쓸어들어와 웃방에서 자군 하였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일어나서 밥을 짓군 하였다.

어머니는 혁명가들의 시중을 들면서 자신도 혁명을 하였다. 어머니가 혁명활동을 시작한 것은 무송에서 살 때부터였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남만녀자교육련합회 백산지구회에 들어가서 녀성들과 아동들에 대한 계몽사업을 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부녀회사업도 하였다.

어머니가 혁명의 방조자로부터 직접적인 담당자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아버지나 우리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리관린의 영향 또한 대단히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우리 집에 와있을 때 어머니를 남만녀자교육련합회사업에 인입하였다.

어머니가 순수한 모성애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이처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회고하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였다. 그것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전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준

소사하 무주툰 토기점골에 있던 강반석여사의 묘비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이였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인생이였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준 스승이라면 어머니는 일단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인정에 끌리거나 곁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선생이였다.

부모자식들사이에 흐르는 사랑도 맹목적인 것이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답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될 수있다. 망국의 그 시대에 나와 어머니사이를 오르내린 사랑과 효성을 줄기차게 관통한 넋은 애국이였다. 바로 그 애국을 위해 어머니는 모성으로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할 수 있는 육친적 권리마저 희생시켰다.

나는 어머니의 무덤에 묘비도 세우지 못한채 토기점골을 떠났다. 그 묘소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세워진 것은 해방후였다. 안도현인민들이 어머니를 잊지 못해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삼형제의 이름까지 새겨넣었다.

유언대로 어머니의 묘는 아버지의 묘와 함께 조국이 해방된 후에야 만경대에 이장되였다.

나는 조국에 개선한 다음에도 한동안 이국땅에 묻혀있는 부모들의 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시국이 복잡다단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였다. 우리가 청춘시절을 고스란히 보낸 만주의 산야에는 나의 부모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혁명의 불바다속을 헤치다가 희생된 전우들의 유해를 찾아오고 그들이 부탁하고 간 자식들을 해방된 내 나라 강산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부모들의 분묘를 옮겨올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결심이였다.

그런 때에 장철호가 찾아와서 부모들의 분묘를 고향에 옮겨와야 한다고 나를 설복하였다.

천묘는 자기가 책임지고 할테니 장군은 만경대에 나가서 좋은 땅을 골라 미리 묘소나 잡아두라는 것이였다. 만주시절의 연고자들가운데 우리 부모들의 묘를 아는 사람은 장철호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가 그 묘들을 옮겨오느라고 말없는 수고를 많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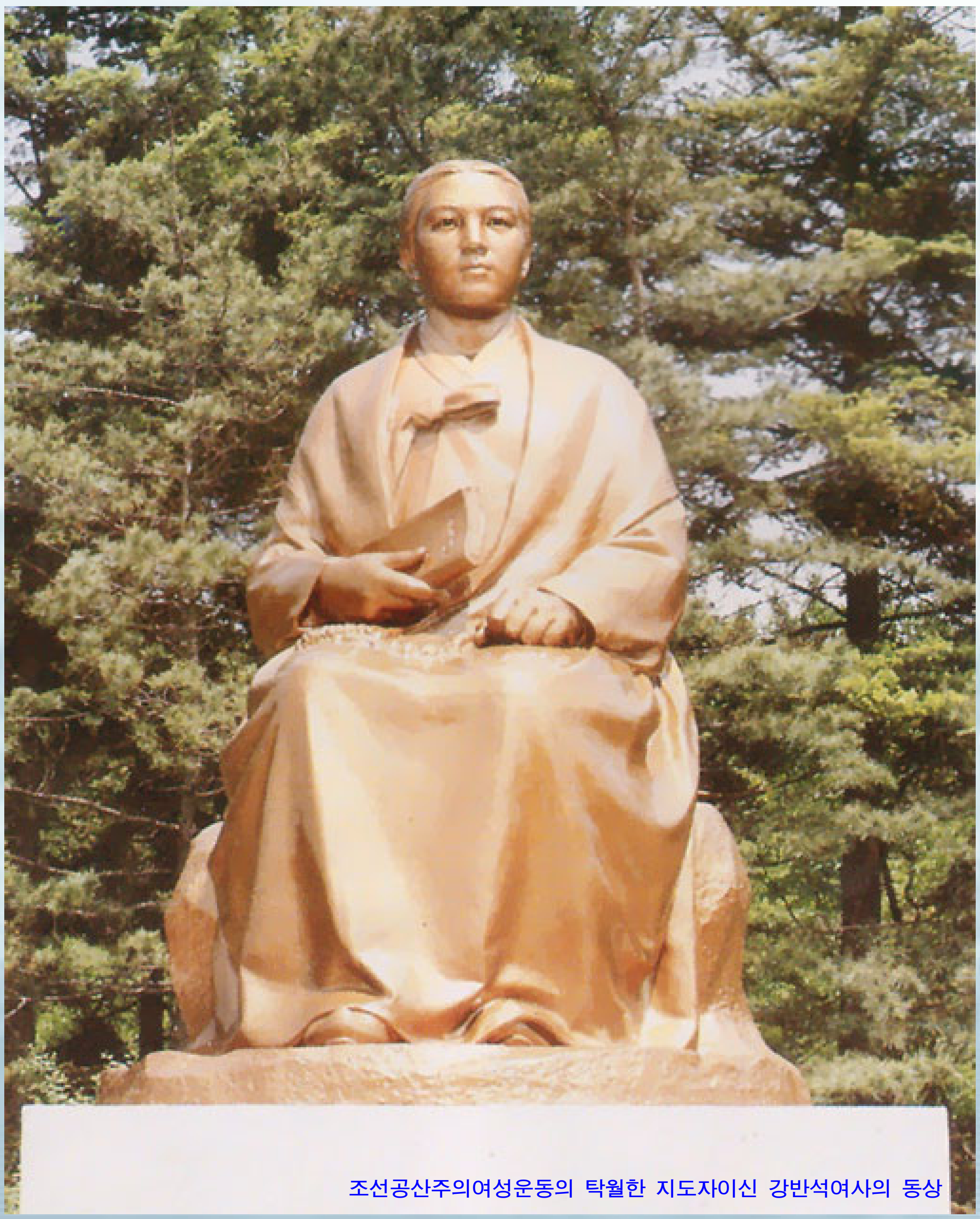
내가 무장투쟁을 할 때 적들은 우리 부모들의 묘소를 파헤치려고 무던히도 모질기게 돌아쳤다. 그러나 무송과 안도의 인민들은 해방되는 날까지 적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묘를 성실하게 지키고 관리하였다. 화성의숙 시절의 나의 스승인 강제하선생은 1년에 두 번씩 한식과 추석명절이 올 때마다 제밥을 차려가지고 처자들과 함께 양지촌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제도 지내고 벌초도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나는 두 동생의 보호자가되고 가장이 되었다.

그러나 혁명은 나로 하여금 가장의 구실도 보호자의 역할도 할 수 없게 하였다.

갈대가 처량하게 설렁거리는 소사하골짜기에 설움에 우는 어린 동생들을 두고 거치른 북만땅을 향해 기약도 없이 떠나가는 내 마음은 가볍지 못했다.

(끝)


조선공산주의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여사의 동상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성대히 기념한 긍지 안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18일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진보적인류의 크나큰 관심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령도에 의하여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최상의 높이에서 떨쳐 지는 시기에 맞이한 올해의 태양절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영원히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온 세계에 힘 있게 과시한 력사적계기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여 온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땅우에 륭성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복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는데 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민족적륭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 온 가장 행복한 인민이며 자기 수령에 대한 순결한 도덕의리를 지닌 혁명적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어버이수령님 탄생 9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성대히 기념하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전례없이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걸출한 위인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정치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이 되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려는 전체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충성의 열의에 의하여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방선이 그 어떤 원쑤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보루로 철통같이 다져 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이 일어 났으며 **김일성**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자연개조사업이 힘 있게 벌어 졌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흠모심은 열화 같은것이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여러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전문을 보내여 오고 축하편지와 선물을 드리였으며 5대륙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태양절기념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세계의 이름 있는 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칭송과 그리움을 안고 뜻 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고 있다.

이번 태양절을 기념한 나날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주체의 태양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체득한 의의 깊은 나날이였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과 풍모의 위대성, 업적의 위대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처럼 빛나는 예지와 걸출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고 나라와 민족, 인류앞에 영구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수령은 동서고금에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인민과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주체의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 주시고 이 땅우에 인민의 나라를 세워 주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장 포악한 미일제국주의를 타승한 영웅적군대와 인민으로 자랑 떨칠수 있었으며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 높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위로 금성철벽인 민족자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일떠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으며 세계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전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진행된 이번 태양절기념행사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여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고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이 펼쳐 놓은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친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뚜렷이 보여 준 뜻 깊은 계기였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김일성**조선의 승리의 기치이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고 충성으로 따른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넋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 선군시대에로 꿋꿋이 이어 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뜻과 지향도 하나, 감정정서도 하나, 운명도 하나인 완전무결한 혼연일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주체위업의 계승의 년대들을 찬란히 빛내여 오는 영광의 나날에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김정일**동지의 충실한 혁명전사로, 동지로 된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의 나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깊이 심어 준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이 력사의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민을 격동시키는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가장 훌륭히 실현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빛나게 계승하여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고 그 위력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압살공세를 분쇄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선군혁명실록이 엮어 지던 력사의 나날에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다져 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 같은 숭배심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산악같이 떨쳐 일어 나 힘차게 투쟁하여 왔다. 뜻 깊은 올해를 빛내이는 로력적성과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높이 받들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이 또다시 닥쳐 온다고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며 장군님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위업도, 조국통일위업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전당, 전군, 전민의 이 불변의 의지를 담은 ≪동지애의 노래≫는 오늘 4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혁명적동지애의 혈연적뉴대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오늘의 정세는 준엄하고 우리앞에는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지만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튼튼한 토대가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가 있으며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의 크나큰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핵이며 **김일성**민족의 생명선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 수령제일주의의 위력으로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는 기적도 창조하고 전후 빈터우에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도 일떠세웠다. 수령이 위대하고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충직한 군대와 인민만 있으면 천만대적도 타승할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불패의 강국도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이 우리 혁명의 력사적총화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것이 우리 인민이 지닌 수령제일주의정신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우리 수령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 당과 군대, 국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틀어 쥐고 수령님의 사상이 가리키는 주체의 한길로만 전진하는것이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수령님의 전사, 제자이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0돐을 백두산혁명강군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군업적을 빛내이는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여야 한다. 당건설과 군건설,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진행해 나가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라남의 로동계급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옹호관철하는것을 첫째 가는 임무로 여기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였고 위업이였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대로 이 땅우에 하루빨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에서 거세찬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아래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김일성**조선의 신성한 령토와 령공, 령해를 굳건히 지키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군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의 중요전선들에서 인민군대가 돌파구를 열어 제낌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기상이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 들이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빛나게 관철해 나가는 선군시대의 결사관철투사가 되여야 한다. 특히 최근년간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 당의 신임과 기대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해 나가야 한다.

변화된 환경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 21세기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일관하게 틀어 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민족적 자존심은 강성 대국건설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온 세계가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태양민족의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힘 있게 떨쳐 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우리 식대로, 우리의 힘으로 풀어 나가며 무엇을 하나 하여도 새로운 관점, 새로운 높이에서 혁신적으로 보고 세계적수준에서 해나가야 한다.

(10면에 계속)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3회 - 학사 김창호 선생 주체91, 4월 19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산, 백두산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 시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 조정의 산이고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에서 민족의 향도성,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탄생하신데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과 세계 인민들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온 정신과 온 몸에는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이 차 넘치고 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의 위대하신 풍모를 잘 알자면 백두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엔 백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정의 산으로써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정의 산으로써 조선의 상징이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입니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북부 양강도 삼지연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을 우리 나라 조정의 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백두산은 지맥으로 볼때, 우리 삼천리 강산을 모두 품에 안고 있는 산입니다. 말하자면 삼천리 강산이 모두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 흘러내렸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과학연구자료인데, 공화국 북반부의 지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확증한데 이르면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는 두류산을 지나 태백산과 남조선의 지리산을 거쳐 남해의 구재봉에 있는 경상남도 하동군까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줄기를 백두대산줄기라고 부르는데 그 길이는 1,470킬로미터 그러니 3,670여리나 됩니다. 백두대산줄기는 신생대 제4기의 지대화산운동에 의해서 형성되었는데 이 산줄기는 조선의 기본 산줄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세의 척추되는 산줄기입니다. 남조선 잡지 ≪말≫ 1997년 4월호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커다란 민족적 긍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에서는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국가과학원 지리학 연구소의 주도하에 우리 나라 기본 산줄기를 백두대산줄기로 명명하였다≫ 라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도 ≪백두대간≫의 이름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백두산은 여섯단계의 화산작용으로 오늘과 같이 웅장한 산채를 이루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장군봉입니다. 그 높이는 2,750미터인데 이것이 백두산이 높이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정에는 화산이 분출한 후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생긴 천지가 있는데 천지의 최대 물깊이는 384미터이고 평균 깊이는 213.3미터, 천지 둘레는 14.4길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이름 있다는 산중호수로써 동아프리카의 빅토리아호수는 깊이가 80미터, 또 남아메리카의 삐삐까까호가 304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숭상해온 백두산은 삼천리 강토의 일만 산줄기를 품에 안고 높이 솟아있는 우리 나라 조정의 산입니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정의 산일 뿐아니라 혁명의 성산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역사적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에서 20대의 청년장군으로서 일제와의 혁명전쟁을 벌리시여 조국광복을 이룩하셨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머님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백두산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북부 국경일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혁명활동을 벌리셨습니다. 이렇게 백두산은 절세의 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새겨져 있는 혁명의 성산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조정의 산이고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에서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온몸에 지니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경애하는 그이께서 백두의 혈통과 혁명정신을 그대로 체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할아버님과 할머님, 작은 할아버님, 삼촌, 외삼촌에 이르기까지 일가분 모두가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들이였습니다. 백두산 줄기 줄기마다에 혁명일가 분들의 피어린 자욱이 새겨져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백두산의 기상은 숭엄하면서도 웅장하고 억센 기상, 만리창공에 높이 솟아 천하를 굽어보는 기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그대로 지니신 백두산의 아들, 빨치산의 아들, 백두산형의 장군이십니다.

주체61(1972)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그이께서 일군들과 함께 백두산으로 오르실 때였습니다. 백두산으로 오뉴월에도 눈이 겨울처럼 쌓여있는 추운 곳입니다. 그러니 2월달의 백두산으로 어떠했겠습니까. 일군들이 날씨가 좀 풀릴때 백두산에 오르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백두산에는 눈보라가 울부짖을때 올라가 봐야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선을 언덕을 수없이 맞받아 헤쳐나가셨는데 이것이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백두의 혁명정신은 만난을 맞받아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백두의 혁명정신은 꺽이면 꺽일지언정 신념을 버리지 않는 고결한 혁명정신이며 진심으로 기어이 이 땅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장에 서시여 백두산에 오르셨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맨 앞장에서 이겨내면서 승리에로 이끌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지니셨다는 것은 또한, 백두산 천지의 맑은 물처럼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맑고 순결하신 것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은 대단히 맑고 깨끗합니다. 천지의 물이 대단히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던 칼새가 하늘과 물을 분간 못하고 천지물에 떨어지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천지 물 속에는 백두산 천지 산천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것 역시 백두산 천지물의 순결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백두산 천지물 속에 선천어들이 떼를 지어 자라고 있다고 하면 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때 백두산 천지에서 헤엄치는 산천어를 꼭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백두산 천지물이 과연 맑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은 이렇게 맑고 깨끗한 천지물처럼 어린 시절부터 어버이 수령님 한 분만을 아시고 수령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면 우리 장군님의 충성심이 얼마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 것이였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이나 성격을 보아도 그렇고 또, 취미와 습관을 보아도 그렇고 그는 신통히도 백두산을 닮았다고, 백두산의 정기의 기상이 그의 온 정신과 온 몸에 차넘치고 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나라 조정의 산이고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의 기상은 숭엄하면서도 웅장하고 억센 기상, 만리창공에 높이 솟아 천하를 굽어보는 기상입니다. 백두산의 기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세계를 굽어보시면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는 과학적인 예지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하를 한손에 거머지시고 쥐락펴락하시는 무비의 담력과 하늘이 무너진대도 끄떡하지 않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고 계십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은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그대로 지니신 백두산의 아들, 빨치산의 아들, 백두산형의 장군이십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 동포들 속에서 백두산에 대한 전설, 백두산에 대한 노래와 시, 백두산을 소재로 한 가곡을 비롯해서 백두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수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로 찾아오는 우리 동포들은 물론 세계 인민들까지도 북조선에 오면 백두산을 찾는 것을 일정의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두산에서 만민이 칭송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시고 그이의 위대성이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는 세기의 위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돐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9면에서 계속)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으며 전례없이 앙양된 혁명적열의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올해의 총 진군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새겨 주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전체 인민이 태양민족의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나가며 강성대국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도록 정치사업을 벌려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성대히 기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비상히 높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태양민족의 크나큰 자부심을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힘차게 투쟁해 나가는 전당, 전군, 전민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필승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태양민족의 긍지와 영광을 온 세상에 떨쳐 나가자.

(끝)

4.19 그날의 염원 기어이 실현하자

우리 민족의 자주민주운동사에 자랑찬 페이지를 아로새긴 4.19민중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어느덧 4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날을 맞는 지금 우리 민중은 4.19 그날의 투쟁광장에 생명도, 청춘도 다바친 애국열사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며 그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기어이 성취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연단, 이 시간에는 4.19민중봉기 42주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4.19 그날의 염원 기어이 실현하자≫ 논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규씨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은 민족민주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4.19민중봉기 4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의로운 항쟁용사들이 피로 거리를 물들이며 파쇼독재의 아성으로 물결쳐가던 영웅적 투쟁모습이 눈앞에 훤히 떠오르고 하늘땅을 진감하던 함성이 귀에 쟁쟁히 들려오는듯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42년전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와 독재를 용납치 않는 열혈청년학생들이 투쟁의 기폭제가 되고 이에 각계 애국민중이 참가하여 일어난 4.19민중봉기는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이승만역도의 파쇼독재하에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습니다.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은 성난 노도와 같이 항쟁의 거리에 달려나와 적수공권으로 이승만독재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으며 반미반독재투쟁에서 귀중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4.19민중봉기는 각계 애국민중의 영웅적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했으며 그들이 힘을 합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나선다면 어떠한 파쇼독재의 아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19나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이 항쟁의 거리에서 피나게 절규한 것은 이 땅에 예속이 없고 독재가 없고 분열이 없는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이였습니다.

그러나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그날의 염원, 숭고한 뜻은 어느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고 이 땅에서는 의연히 압제와 굴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4.19의 열매를 탈취한 미국은 지금도 이 땅에서 식민지통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로 침략과 약탈의 장본인으로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우리 민족,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부시정권의 침략적인 대한반도정책과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가 날로 격화되어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시행정부의 ≪핵태세 검토비밀보고서≫에 작성된 핵공격계획에 따라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핵전쟁책동이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러 민족공멸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결과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민중은 생존권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으며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4.19민중봉기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반세기가 넘도록 이 땅에서 식민지지배자로 군림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민주민권과 생존권을 유린말살하고 있는 최대의 흉적이며 침략과 전쟁의 괴수, 평화와 조국통일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19민중봉기이후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 반미투쟁은 커다란 상승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42년전 4.19민중봉기자들이 그처럼 바라고 절규했던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은 여전히 꿈으로만 남아 있으며 역사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중앞에 나서고 있는 투쟁과제는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유린당한 민족적 자주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이 땅을 불법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민권, 생존권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지난 반백년이상에 걸치는 반미투쟁을 통해 뼈저리게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 여기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을 찾는 길이 있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당면해서는 부시정권의 악랄한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미국의 새로운 침략전쟁, 핵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반핵투쟁을 과감하게 줄기차게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민족공멸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런만큼 부시행정부가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면서 핵전쟁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의 핵전쟁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침략전쟁책동에 편승해서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무력과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이 땅의 호전분자들과 극우보수세력의 반북반통일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회창을 비롯해서 우익보수세력인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반북대결적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미국에 아부추종하면서 대결과 전쟁책동에 집착하며 북과 끝까지 해보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통일이 이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반북대결과 전쟁책동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돌격대로 나서서 반북대결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범죄적 책동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증대될 것이며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은 고사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각계층 민중은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과 호전집단의 무모한 대결책동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을 철저히 격파하고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소속의 차이를 불문하고 반제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감으로써 4.19항쟁용사들이 그처럼 바라던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8~19일

4.19의 의미 오늘에 되새겨본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유진명 : 안녕하세요.
사회자 : 해마다 4월이 오면 우리 민중은 예속과 파쇼, 분단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해 벌여온 자랑찬 4.19민중봉기의 그날을 회고하게 됩니다. 이날을 맞을 때마다 각계층 민중은 커다란 자긍심을 가지고 깊은 감회속에 42년전 4월의 격동적인 나날들을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4.19민중봉기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까요, 그 현실적 의미를 찾아봤으면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어느분 먼저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지금으로부터 42년전이죠.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은 침략과 약탈, 전쟁과 분열의 주범인 미국의 간악한 식민지통치와 이승만파쇼독재에 의해 산생된 썩은 정치와 사회악, 극심한 생활고에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분기해 나섰는데요. 4.19봉기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갈구하는 우리 민중의 과감한 대중적 진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19민중봉기는 1960년 3월 유례없는 테러와 협잡에 의한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마산시민들의 투쟁으로부터 시발이 됐죠. 이 투쟁은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학생의 시체가 마산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이 촉발제가 돼서 삽시에 경향 각지에로 확산이 됐습니다.

마산시민들의 투쟁에 호응해서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청주, 인천, 제주도 등 전국의 모든 도시와 지방들에서 분노한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이 봉기했던 거죠.

4.19민중봉기

유진명 : 서울에서의 투쟁은 4월 18일 고려대학생들의 가두시위로 시작돼서 19일에는 벌써 근 10만명의 학생시민들이 참가한 대중적 항쟁으로 확산됐어요.

투쟁에 나선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썩은 정치 물러가라!≫, ≪이승만정권 타도하자!≫, ≪통일만이 살길이다!≫, ≪미국은 데모에 간섭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고 달려드는 경찰과 맞서 투석전을 벌였던 겁니다. 여기에 온 시민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했고 남녀노소가 다 떨쳐일어나 연대와 지지를 보냈는가 하면 대학교수들까지도 학생들이 흘린 피의 댓가를 받아내자고 외치며 투쟁에 동참해나섰어요.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총격의 사선을 넘어서 중앙청을 비롯한 통치기관들을 습격, 소각했고 주한미경제조종관실, 주한미경제협조처 사무실을 비롯해서 미국의 현지기관들을 부수고 경무대로 육박해 나갔죠.

대중적 항쟁은 4월 19일을 전후해서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이에 수백만명이 참가해 결사항전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4월 21일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1개월여의 피어린 영웅적 투쟁을 통해서 이승만독재정권을 타도하고야 말았죠.
사회자 :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됐습니다만 고려대생들이 항쟁의 봉화를 지펴올린 4월 18일부터 이승만친미독재정권을 거꾸러뜨린 4월 26일까지 가열차게 전개된 4월 민중봉기의 나날 청년학생들과 민중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그 얼마였는지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값비싼 댓가로 쟁취한 승리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것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윤정원 : 우리 민중은 투쟁의 나날 그 모든 어려움과 뼈를 깎는 아픔도 이겨내며 독재집단의 유혈적인 탄압을 박차고 심지어 탱크의 포신앞에다 가슴을 내대며 전혀 두려움없이 싸워서 마침내 10여년간 민중위에 군림하던 이승만역도의 하야성명을 받아냄으로써 승리를 이룩했던 건데요. 그 승리는 그 어느 개인이나 몇몇 단체만이 아닌 이 땅의 열혈 청년학도들과 노동자, 농민, 지식인 그리고 칠순의 노인과 부녀자들, 초등학교 꼬마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정의에 살려는 광범위한 모든 민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해서 이룩된 정말 커다란 승리였다고 봅니다.

4.19민중봉기의 승리는 이 땅의 80여개 지역에서 참가한 700만명의 광범위한 대중뿐 아니라 이승만을 타도하자고 외치면서 고국 민중들의 투쟁에 연대를 표시하며 동참한 미국과 일본에 살고 있던 교포들의 굳센 의지와 넋도 깃들어 있어요.
유진명 : 참으로 4.19민중봉기에서 이룩된 승리야말로 정의와 애국에 투철하고 불의와 미국을 반대해 투쟁에 과감한 우리 민중의 단합된 힘에 의해 성취된 귀중한 열매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승만독재정권을 거꾸러 뜨린 4월 민중봉기의 승리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중의 투쟁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놓은 일대장거였다는 면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을 해요.

4월민중봉기를 통해 우리 민중은 단결의 위력과 영웅적 기개를 뚜렷이 과시했고 각계층 민중이 힘을 합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나선다면 그 어떤 독재의 아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민중이 민족민중운동을 보다 강화발전시켜 나가는데서 매우 귀중한 수단으로 될 거라고 봐요.
사회자 : 우리 민중은 4.19민중봉기를 통해 친미독재자인 이승만역도를 권좌에서 몰아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잖아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이 땅을 불법강점한 미국은 그 첫날부터 군정을 실시하면서 반민족세력과 친미매국세력을 내세워 저들의 식민지지배통치를 옹호하고 민족자주세력, 애국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감행한 침략자였고 이 땅을 파쇼가 판을 치는 무법천지로 전락시킨 간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족경제발전을 억제하고 민생을 도탄에 몰아넣고 경제전반을 미국의 이익에 복종하는 식민지하청경제로 전락시켰던 거죠. 그리고 한반도전체를 지배할 야망으로 6.25북침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강요한 철천지 원수입니다. ≪한국≫의 실제적인 지배자, 통치자이고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우리 민중이기에 4.19를 통해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던 거죠. 지난 4.19민중봉기야말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째 뒤들어놓은 영웅적 장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4.19를 통해 민족민주운동의 주체적 역량이 더욱 성장하고 강화된 것도 찾아봐야 할 또하나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진명 : 우선 4월 민중봉기를 통해 청년학생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청년학생들이 4.19민중봉기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잖아요. 청년학생들은 가열찬 4.19불길속에서 더욱 각성되고 세련된 커다란 사회정치적 역량으로 자라났고 그 이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에서 주력군으로, 핵심부대로 언제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오늘날 이 땅의 백만학도들이 변화발전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선봉장으로써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있는 건 바로 4.19의 정신과 기개를 꿋꿋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그뿐 아닙니다. 4.19민중봉기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의 대중운동을 성장시키는데서도 커다란 밑거름이 됐다고 봐요. 4.19를 통해 노동자,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투쟁열의는 비상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4.19이후 생존권과 민주민권을 위한 노동자, 농민들의 여러가지 형태의 조직들이 결성이 되고 그의 주도하에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투쟁들이 끊임없이 전개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층 민중들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일익을 담당해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4.19를 통해 전반적 대중운동은 새로운 발전을 이룩했고 점차 높은 단계에로 성장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의 투쟁사에서 자랑찬 승리의 장을 열어놓은 4.19민중봉기,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서 어느덧 42년이라는 연륜을 새겼습니다. 이 나날에 많은 것이 변하고 달라졌지만 4.19 그날에 피나게 절규한 우리 민중의 염원과 요구는 아직도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명 : 4.19민중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어언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민주민권과 생존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통일은 의연히 미국과 그에 아부추종하는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반북반통일적인 책동으로 인해서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윤정원 : 더욱이 최근 부시를 비롯한 미행정부내의 호전분자들의 ≪악의 축≫발언과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작성된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에 따라 한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고 민족공멸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에 편승을 해서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한나라당과 극우보수세력은 반북대결적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걸 들고나와 북진통일의 개꿈을 실현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같은 엄혹한 사태를 외면하고 수수방관한다면 우리 민족, 민중에게 어떤 결과가 미치겠느냐 하는 건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진명 : 온 겨레가 그처럼 열망하는 민족의 자주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요. 이같은 현실은 4.19민중봉기 당시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이 외치던 투쟁구호, 그들의 염원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세를 반대하고 애국과 민주에 살고 통일을 지향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 국민들은 42년전의 열혈 청년학도들과 민중의 고귀한 뜻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는 길에 용약 떨쳐 일어나 과감한 투쟁을 벌여야 할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4월의 투쟁광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열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자주화되고 민주화되고 통일된 새 세상을 앞당겨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새겨지는 4.19용사들의 그 투쟁정신을 가슴 속에 더욱 깊이 간직하고 자주, 민주, 통일위업을 이룩할 그날까지 중단없는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 나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사회자 : 4.19민중봉기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사에서 새로운 전환적 계기로 됐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남녀노소 가림없이 전국민이 일시에 한결같이 투쟁해 나선다면 어떤 원수도 타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는데도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만큼 미군철수, 반미반부시투쟁에서도 전민중이 한결같이 나서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8~19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너무 많다

지난 12년간 국방비 증가율 119%, 분담금은 634% 증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미국과의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의 협상능력과 전략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본회의 동의과정을 통과할 예정인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6일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미군 방위분담금 증가율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동시킬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는 한미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 2002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약 119%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중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증가율은 약 634%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강장석 통일외교통상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우리의 분담규모는 이 협정 제1조에서 명기하고 있듯이 ≪공정한 부분≫이 돼야 할 것인 바, 분담금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부담능력(경제력)과 탈냉전 이후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기타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의 주요한 수입국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담금 예산배정결과 91년 국방예산 대비 주한미군 분담금 점유율은 1.44%(835억원)에 그치다가 올해는 3.56%(5천8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보고서는 미군주둔 비용 분담율의 급상승에는 외견상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걸맞는 책임을 분담한다는 측면과 미국의 국방비 축소로 인한 대외군사정책의 변화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의 협상능력과 전략이 미흡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검토보고서의 지적이다. 즉 ≪미 국방부에서 의회에 지출하는 방위비분담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지원하고 있는 토지공여 등의 간접비용들이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군측이 제시하는 총 주둔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측이 구체적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례로 미 국방부 방위비분담보고서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토지공여 등 간접지원비가 14.3억달러로 평가됐으나 98년에는 4억달러, 99년에는 3.97억달러만이 인정받고 있다. 또 한국은 미군 총주둔비용의 구체적 구성항목별 액수와 산출근거를 미군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리적 근거에 바탕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미국측이 협상시 내세우는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 목표를 설정한 199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해 체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점도 미흡한 협상능력으로 평가됐다.

미국 199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방위비분담 관련 조항은 ≪2000년 9월 30일까지 해외주둔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국의 재정적 지원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리도록 한다. 본 항에서 언급한 주둔국의 재정지원에는 미군, 미군 장비, 미군 시설에 대한 세금, 사용요금, 또는 기타 부과료 면제도 해당된다. 1998년 9월 30일까지 주둔국의 GNP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10%, 또는 미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율까지 인상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또 현재 현금분담률이 72.4%에 해당하는 4천439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물지원은 27.6%에 해당하는 1천693억원에 그치는 것을 지적하고 군사건설비 등의 항목에 대한 지원 성격상 대폭적인 현물지원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 국방부 ≪주둔국의 미군 주둔비용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99년 0.17%)은 같은 미군 주둔국인 일본(0.12%) 독일(0.1%)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독일의 경우 미국에 대한 양자 차원의 지원 이외에 별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운영과 유지에 관한 다자적 차원의 경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또 일본 독일과 비교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시설 토지 공여와 조세감면 등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외에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 군수지원 등을 직접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의 경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에 따른 직접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나 SOFA에 따른 토지임대료 기지이전 비용분담 등을 통해 직접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고용원 인건비와 수도전기 가스비, 그리고 훈련장소 이동경비 등을 특별협정에 따라 직접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2004년까지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3월 시작돼 5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지난 4월 3일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주한 미대사가 최종 협정에 서명했다.

이영태기자
프레시안 2002/04/19

국방부는 국가적 자존심까지 망쳐버린 F-15K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는 19일 권영효 국방차관주재로 확대회의를 열어 미국 보잉사의 F-15K를 F-X로 확정짓고. 2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2단계 평가기준이 우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합작전과 군사협력을 둘째,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북관계 전반, 외교협력관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셋째, 해외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으로 교역비중, 무역수지개선 기여도였다며, 종합적인 결과로 F-15K가 ≪우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통일연대는 전혀 국민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선정기준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F-15K가 F-X기종으로 선정된 것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임동원 특보가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애자고 한 4.5 남북공동합의를 무색케 하는 결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임동원 특보의 평양방문으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의지를 재확인한 남북공동합의가 발표됨으로써, 남북관계가 다시 원상회복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번 남북공동합의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애자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가안보,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연합작전과 군사협력, 대북관계등을 고려한다며 국방예산의 1조 8천억원을 초과하면서까지 F-X기종으로 F-15K를 선정한 것이다.

이는 어렵게 재개된 남북대화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F-X선정에서의 F-15K 확정은 미국에게 군사분야에서의 자주권까지 포기한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김동신 국방장관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F-X선정의 중요한 요소는 상호운용성과 한-미 연합체계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아미티지 국무부장관, 토머스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등의 K-15K 구매 압력은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자주성이 근본 생명인 군사분야에서의 이 모든 굴종과 억압을 참다못한 평가실무 공군장교마저 F-15K의 낙후성 및 미국의 외압에 대하여 양심선언을 강행함으로써 전 국민의 심각한 공분을 다시한번 확인한 바 있다.

지금 남쪽의 모든 양심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F-15K 선정을 반대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그런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선정이 강행된 이후 즉각 선정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자신의 패권주의적 전쟁책동을 전혀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한반도에서 군사무기 강매와 대규모 군사훈련등을 통해 노골적인 군사개입을 해온 것을 규탄하여왔다. 그러나 전쟁광으로서의 자신의 본색을 조금도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국 중심의 한미군사동맹강화와 낙후한 전투기를 고액으로 팔아 없애기 위하여 F-X기종으로 F-15K를 선정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후안무취한 범죄에 대하여 7천만 전 민족과 온 세계평화 인류는 경악을 금할수 없다.

또 우리는 그 어떤 명분도 없이 전 국민의 일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는 국방부를 지켜보며 과연 이들이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대인가 아니면 오로지 미국에 굴종하여 보신만을 일삼는 자들인가를 엄숙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선정기준이란 자주국방의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로지 한미군사공조체제강화만을 위한 원칙이라는 것, 외세에 아부하기 위하여 민족의 이익을 저버리는 원칙일뿐임을 우리는 똑똑히 천명한다.

이에 통일연대는 F-15K 선정이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평화 실현을 방해하고 전쟁의 불씨를 지피우며, 군사적 자주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F-15K선정≫ 의 흑규명 및 범국민적 철회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통일연대
2002/04/20

10년후 사실상 통일상황 가능

세미나에서 임동원특보가 전망

임동원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앞으로 10년 동안 북한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20일 내다봤다.

임 특보는 이날 오후 3시 미래전략연구원(원장 윤영관.尹永寬)이 ≪한반도 안보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주제로 서울 충무로 매일경제신문사 중강당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제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지고 경제.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과 군비통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는 ≪국제정세 변화에 장고를 거듭했던 북한이 이제 남북간 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북한이 안심하고 개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일관성있게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석기자
연합뉴스 2002/04/20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하라!!

정부가 이번 229회 임시국회기간에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생리휴가와 주휴 무급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당 의원입법안을 통과처리하겠다는 결정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지난 12월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의 골자는 ≪휴일휴가 축소, 탄력근로제 확대,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등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들을

완전히 무시한 껍데기 뿐인 주5일근무제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주 5일 근무제 노사정 합의대안 가운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노동법개악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노동자들이다. 더구나 특수고용직노동자로 불리우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는 소위 노사정 합의대안은 이들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와 재계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휴가가 늘어난다. 때문에

다른 휴가(주휴, 생리휴가,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양보해야 한다≫는 거짓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생리휴가를 비롯한 주휴월차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권리이자 모성권 건강권의 문제이다.

재계와 정부의 논리는 그동안 시행하던 것조차 마저 빼앗아가려는 왜곡된 핑계이자 노동조건 개악 시도이다.

우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빙자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후퇴시키는 노사정 합의대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조건 후퇴없는 실질적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의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한번 결의한다.

–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하라!!

–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전면 철회하라!!

– 휴일휴가 축소말라!!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2002/04/20

울산공무원 노조 전격출범

전국 공무원 노조(전공노) 울산광역시 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60여명은 19일 오후 북구 농소2 동사무소에서 울산지역본부 창립 대의원 대회를 갖고 공무원 노조 울산지역 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날 공무원들은 당초 북구청 상황실에서 대의원 대회와 노조 출범식을 가지려 했으나 경찰이 10개 중대 병력을 동원, 북구청 진입로를 원천 봉쇄하자 인근 농소2 동사무소에서 기습적으로 노조를 출범시켰다.

공무원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노조 규약을 상정하고 중구청 공무원 전형진(44)씨를 울산지역 본부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19일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공공노련(PSI)과 공동으로 한국정부의 공무원 노조탄압과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및 공무원 노조간부 구속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이들 4개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조정관인 알베르토 오데로에게 접수한 진정서에서 ≪한국 정부의 공무원 노조탄압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가 표방하는 결사의 자유 원칙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데로 조정관과의 면담에는 김정수 공무원노조 정책특별위원장, 윤영모 민주노총 국제국장, 댄 쿠니아 ICFTU 제네바 사무소장, 한스 엥겔베르츠 PSI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영모 국제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 5명의 석방을 위해 ILO가 즉각 개입해 줄 것을 환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엥겔베르츠 PSI 사무총장은 이날 제소접수 후 연합뉴스와 만나 ≪오는 6월초에 열리는 ILO총회에서 한국.일본의 공무원 노조결성 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권감시회의는 한국노동권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키로 결정하고 오는 5월 OECD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윤영모 국제국장은 전했다.

시민의 신문 2002/04/20

4.19와 박정희기념관은 공존할 수 있을까

19일은 4.19혁명 42주년 되는 날. 이승만 정권이 영구집권의 야욕으로 3.15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이에 분노한 학생과 민중들이 일으킨 4.19혁명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싹트게 한 한국현대사의 분수령이었다. 하지만 민중들의 피가 채 식기도 전에 박정희가 일으킨 5.1 6 군사쿠데타는 또 한번 민중들을 군사독재체제의 어두운 터널 속을 걷게 했다.

4.19와 박정희기념관은 공존할 수 있을까. 19일 수유리 4.19 국립묘지공원에는 박정희 기념관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들은 오전 기념행사를 가지고 영령들에게 헌화와 향을 올렸지만, 이들은 ≪박정희 기념관 반대≫를 외치며 4.19 영령들을 위로했다.

민중연대 홍근수 공동대표는 ≪정부는 박정희 기념관과 4.19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물었다. 그는 ≪박정희는 4.19를 군홧발로 짓밟고, 18년을 유신독재자로 군림했다≫며. ≪4.19를 기념하고,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선 박정희는 청산돼야 할 역사≫라며 주장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도 ≪60년대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난 데 대해 외신들은 쓰레기 통 속에서 장미꽃이 피어난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4.19 민주혁명을 유린하고, 테러한 박정희의 기념관 건립은 후손들과 영령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 둘의 공존을 거세게 반대했다.

현실은 생각보다 앞선다. 현재 박정희기념관은 은평구 상암동 26번지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바라보며 착공되고 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월에 착공예정이었으나, 국민 여론의 반발로 올해 1월 29일 ≪도둑≫ 착공해 공사 중에 있다. 규모도 계획보다 10분의 1로 줄어 건평 650여평에 1층에는 기념관, 2,3층은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

특이할 만한 것은 박정희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장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점. 국민연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시 고건시장에게 마포구 상암동 산 26번지의 상암택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기념관 건축을 위하여 약 6백50평 내외의 건축면적을 사용토록 허락케 했다≫고 전한다.

국민연대측은 이날 수유리 국립공원 집회에 이어 기념관 공사 건설 현장에서 ≪4.19 민주혁명 유린한 5.16 테러범 박정희 기념관 도둑착공 규탄 집회≫를 열었다. 국민연대측은 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박정희기념사업회 명예회장직 사퇴하고 △2백억원을 국고 환수할 것과, △기념관 건립 부지 허가를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대 측은 또 박정희 기념관건립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선영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19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1)

▶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1)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
2)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
3) 세 개의 전선이 아니라 두 개의 전선이다
▶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1) 조국통일운동의 당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
2)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들이 작성한 논문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이 발표되자 여러 가지 반향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이 논문에서 김철수 동지의 비판에 대하여 응답하려고 합니다. ≪통일여명≫ 동지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응답하는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데, 곧 발표될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게 된 것은, 변명 같이 들리겠으나, 우리들의 노력을 논문집필에만 집중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들이 이 논문을 거의 탈고하게 되었을 때, 이산, 김철수 동지의 논문을 비판하는 ≪통일여명≫ 김현 동지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반국적 관점의 오류를 지적 · 비판하고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자는 ≪통일여명≫ 동지들의 견해에 찬동하며, 그들의 집필노력에 동지적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오래 전에 나왔던 통일전선의 기성이론 가운데는 오늘의 변화 · 발전된 정세에 맞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2000년의 역사적 사변에 의한 정세발전이,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성립되었던 시기에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사변이란 조미 공동코뮈니케의 채택과 6.15 공동선언의 채택입니다.

이 두 가지 문서의 채택이 증거하고 있는 조미관계 및 남북(북남)관계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혁명정세와 통일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 대한 비판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집필목적은 우리 민족민주운동 앞에 제기된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명하자는 데 있습니다.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들은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 사용되었던 몇 가지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대체하고 일부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들의 견해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는 남북(북남)통일전선, 남측에서의 통일전선, 북측에서의 통일전선, 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 남북(북남)통일전선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으로, 남측에서의 통일전선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광범위한 근로대중의 통일전선으로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이며, 북측에서의 통일전선은 북측 지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으로 각각 설명되었습니다. 김철수 동지가 ≪전국혁명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인 전선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존재해야 맞다≫고 한 것은 기성이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는 모든 전선을 통일전선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해설하였습니다만,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남북(북남)통일전선을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남측에서의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 썼습니다.

1)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

우리들은 6.15 공동선언의 채택에 의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범위의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했고, 그것을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나왔던 시기에는 해외동포사회의 조국통일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남측과 북측(북측과 남측) 두 지역의 조국통일역량을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것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북과 남), 해외 3자의 통일전선이 아니라 남과 북(북과 남)의 2자 통일전선으로만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범민련이 남과 북(북과 남), 해외 3자 연대조직으로 결성되었던 1990년대 이후에 통일정세의 주체적 조건은 해외동포사회의 조국통일역량까지 포괄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 조선민족 전체의 조국통일역량을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운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남북(북남)통일전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는 민족통일전선이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강령으로 하는 통일전선이라고 해설하였습니다. 당시는 6.15 공동선언이 나오기 훨씬 이전 시기였으므로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는 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들은 6.15 공동선언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오늘의 통일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글에서 오늘 민족통일전선이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 해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강령으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 때문에 실제로 형성되지는 못했으며, 앞으로 형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6.15 공동선언 이후의 통일정세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이 실제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

우리들은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 사용하지 않은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용어라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기성이론에서 제시했던 남측에서의 통일전선과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에서는 ≪남측에서의 통일전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는 민족민주전선이 세계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였습니다.

김철수 동지는 ≪정권장악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전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통일전선은 오직 민족민주전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전선론≫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혁명정세, 통일정세 앞에 전개되는 전선은 두 개의 전선입니다. 그 하나는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하고 있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에 따라 각계각층 근로대중이 결집하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 완결된 민족민주전선체를 결성하지 못한 미완의 민족민주전선입니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전선은 남측의 민족민주전선과 전민족적 범위의 민족통일전선 두 개의 전선밖에 없습니다.

3) 세 개의 전선이 아니라 두 개의 전선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김철수 동지는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에는 세 개의 전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북남)통일전선, 남측에서의 통일전선, 북측에서의 통일전선이 그것입니다. 그는 ≪북의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인민정권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을 밀고 나가는 북의 혁명전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 오늘날 북측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전선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역량이 사회주의혁명의 높은 단계에 들어가면 전선수준을 벗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수준으로 상승 · 발전하게 됩니다. 통일전선체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주체역량의 발전수준에서 볼 때 그 지위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오늘 북측에서는 통일전선체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북측에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설했던 것은, 그 이론이 성립되었던 당대의 북측의 혁명발전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북측의 혁명발전수준은 오늘의 높은 발전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사실을 언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을 학습하는 주체적 태도는 그 이론을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의 언어로 해설하는 것입니다.

→

2. 그렇다면 지역통일 전선은 무엇인가?

김철수 동지가 비판을 집중했던 것은 우리들이 ≪두 개의 전선≫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사용한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은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전략적 개념 안에 포괄되는 전술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역통일전선은 독자적인 지위나 발전전망을 갖지 못하는 전술단위의 전선입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지역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해명하려고 하였습니다.

1) 조국통일운동의 당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

지금 우리 남측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면서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새로운 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족통일전선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민족적 범위의 통일전선이므로, 남측이라는 지역단위에서 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도 역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 따르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은 마땅히 반미자주화를 강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위업은 반미자주화운동을 통하여 실현되어 가는 위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성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역통일전선도 반미자주화를 자기의 강령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남측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에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조직들만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관변단체, 보수단체, 시민단체들까지 총집결되어야 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들고 나오는 경우, 중간세력들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선으로 형성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이 마땅히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들어야 하는 데,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이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한 것은, 반미자주화의 강령 대신에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전술적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이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여 형성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 전선 안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주동적으로 작용하여 지역통일전선이 장차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승 ·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지역통일전선 안에서 주동적으로 작용하여 지역통일전선을 상승 · 발전시킴으로써 그 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지역통일전선의 강령과 민족민주전선의 통일강령 사이의 구분이나 민족통일전선의 강령과 민족민주전선의 통일강령 사이의 구분은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은 그때까지 존재하는 전술단위의 전선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혼동하거나, 또는 전략은 알지 못하고 전술적 투쟁에만 매달린다거나, 또는 전술은 알지 못하고 전략적 구호만을 외치면서 동력을 전략적 투쟁으로 집중시킨다면, 현실이 제기하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대세력과의 투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통일전선에 관하여 우리들이 설명하였던 내용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운동의 전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축이 반미자주화운동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다양한 전술은 알지 못하고 전략적 구호만을 들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미자주화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불변의 전략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문제는 반미자주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여 혁명정세와 통일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전술적 투쟁을 능숙하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전술문제를 소홀히 대하여 전술적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는 운동의 주체가, 전술이 없는 전략적 투쟁만을 조직하면서 자신이 마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관주의의 오류입니다.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과 전술은 조성된 혁명정세와 통일정세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전략과 전술, 조국통일운동의 전략과 전술과 밀접하게 결부되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6.15 공동선언의 제1항에는 민족자주의 과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15 공동선언은 그 과업을 반미자주화의 과업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미자주화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남측의 친미예속정권을 견인하여 6.15 공동선언을 채택해야 했으므로 그러한 전술적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6.15 공동선언에 제시된 민족자주의 과업은 반미자주화의 과업을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어도 내용적으로 담고 있는 불변의 전략적 과업입니다.

지역통일전선도 친미예속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남측의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을 6.15 공동선언의 강령적 기치 아래 결집시키는 전선이므로, 현재의 조건에서는 민족자주의 과업을 반미자주화의 과업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반미자주화의 과업은 지금 주한미군 철수운동으로 수행되고 있는 데, 현 단계에서는 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이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추진하는 전선으로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추진한다면 그 전선에 포괄되는 역량의 범위는 민족민주운동의 범위로 좁아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이 당면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통일전선은 남측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내걸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기치를 들고나서되 차츰 반미자주화의 기치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술적 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을 마치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전략적 과업을 포기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김철수 동지는 ≪6.15의 호정세 속에서 반미자주화노선을 접고 부차적인 요구와 투쟁계기를 앞세울 대신, 반미자주화의 주공방향을 전면에 내걸고 모든 요구와 계기를 반미자주화로 집약시켜내는 것이 응당한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주장이 오늘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요구이지, 지역통일전선이 당면하고 있는 요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통일전선이 민족자주의 과업을 명시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선으로 형성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반미자주화의 전략적 과업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지역통일전선이 반미구국통일전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술적 조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과도한 문제설정입니다.

2)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

남측에서 6.15 공동선언의 강령적 기치 아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결집시키는 지역통일전선은 누가 주도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은 민족민주전선에 관한 이론을 해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민족통일전선을 누가 영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통일정세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전선의 형성과 구축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이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에 의하여 주도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통일전선이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통일전선이므로, 남측에서 6.15 공동선언의 강령적 기치 아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결집시키는 지역통일전선도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주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을 영도한다는 말은 민족통일전선을 통하여, 민족통일전선 안에서 영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북(북남)관계는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대치상태로 여전히 묶여있으므로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 지역에 직접 진출하여 남측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민족통일전선으로 결집시키는 조직 · 정치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은 남북(북남)노동자와 남북(북남)농민을 통일연대기구로 결집시키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금강산과 평양에서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통일지향세력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 정치회합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추진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사업만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 사업도 있습니다. 이 지역적 임무는 남측에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통일지향세력과 반통일세력의 투쟁(이른바 ≪남남갈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적 임무를 전술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통일전선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사업은 남측의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 아니라 최대의 반통일세력인 미 제국주의세력과의 투쟁에 집중되는 조직 · 정치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지금 남측에서 통일지향세력과 반통일세력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면서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 사업은 누가 책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책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사업을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 사업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비주체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민족통일전선을 남측에서 공고하게 형성하는 지역적 임무에 열성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민족통일전선을 확대하고 공고화하는 전략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당면임무를 생각하면서 지역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책임적 주체가 우리 민족민주운동역량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전술단위이므로 전략적 통일전선으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지역통일전선이 민족민주전선의 임무를 대행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김철수 동지는 우리들이 ≪한국변혁의 전략적인 두 개 전선을 설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고 비판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들은 남측 지역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선을 두 개의 전선으로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이지, 남측 지역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선이 아닙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와 남측 지역혁명의 임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김철수 동지는 민족통일전선이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통일전선이라는 사실만 해설하였던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 충실한 나머지, 그 민족통일전선을 남측에서 공고하게 형성하는 지역적 임무를 위하여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당면문제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것 같습니다. (내일 계속)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11월 6일